



승무·살풀이춤 전수교조

김/명/자

“환희심에 집착않고 하심해야 진짜춤 가능”



김명자 원정의 승무(위)와 살풀이춤(아래).

2월 16일, 부산 범일동 이매방 무용학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코팅해 준 것은 알고 있니? 불교방송 들어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 나는 매일 들으며 좋은 말씀 나오면 메모도 하고 그래.”

무용학원에서 웬 법회? 아니다. 이매방 무용학원 김명자(63·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부회장) 원장이 수업이 끝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간곡한 당부의 말이다.

부처님을 알고 난 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처럼 좋고 사랑스러워했다는 김 원장. 여는 사찰에서나 쉬 볼 수 있을지언정 평범한 보살같은 그녀가 승무와 살풀이춤의 대가로 꼽히는 이매방(77) 선생의 부인이다. 그러나 김명자 원장은 이매방 선생의 아내이기에 앞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춤 전수교조로 이매방류의 춤을 출공계 있고 있는 그의 제자이기도 하다.

삼십대 초반에 40대 중반의 이매방 선생을 만나 결혼했으니 벌써 30여 년을 부부지간으로, 또 사제지간으로 함께 춤의 길을 걸어왔다. 이

‘이매방’의 부인이기 전 춤꾼 김명자 만들기에 30여 년 한결같이 정진



앨범을 보여주며 즐거웠던 공연의 기억을 떠올리는 김 원장.

모의 소개로 이뤄졌다.

“고모가 부산에서 맛있는 무용가를 만났다고 만나보래요. 처음 봤을 때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겠지요?”

남편에게 전수 받고 딸에게 가르치며 행복 “춤도 구도, 숙성된 맛이야”



‘일심’ 공연 후에 남편 이매방(앞줄 가운데) 딸이 현주 씨와 인사하는 김명자(오른쪽) 원장.

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현주(31) 씨도 춤의 길을 같이 걷게 되었으니, 그들 가족은 춤으로 대화하고 춤으로 사랑하는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2001년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렸던 ‘우봉 이매방 춤 대공연’과 2002년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김 원장의 이순 기념 공연 ‘一心’에서는 가족이 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매방 선생과의 첫 만남은 인연에 사는 고

“남편에게 춤만 배워도 본전은 한다”는 농담만 진담반의 얘기를 들으며 시작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어느 부부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춤밖에 모르는 사람 이매방’은 언제나 춤의 세계에 빠져 살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그 슬픔과 한숨은 그녀의 춤으로 녹아들어 춤의 에너지로 화했다. 또한 춤꾼 김명자를 붙자 김명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딸 현주씨도 그녀의 불연 맺기에 한 몫을 했다.

“어릴 때 춤 배울 때는 학원이 따로 없어 절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기어 때문인지 팔이 날고 나니 부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요. 너무 소중한 인연을 주신 것에 감사할 드리고픈 마음에...”

그렇게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은 김 원장을 ‘따뜻한 마음’과 ‘하심’을 결의한 춤꾼으로 변모시켰다. 예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을

하심으로 다스렸고, 진리를 향한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춤에 대한 정진의 힘을 배웠다.

“스승이 많아 저절로 한걸음 한걸음 춤에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김 원장은 어린 시절,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고모댁에서 자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스승에게 춤과 장을 배웠다. 그러나 김 원장의 스승들은 참된 제자의 도리를 다하려는 그녀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집과 연구소밖에 모르며 살았어요. 불교를 알게 되면서 춤이 구도의 과정과 다르지 않아 이것 저것 다 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이처럼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기조차 했던 이매방 선생의 춤에 욕심부리지 않으며, 결코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다가선 결과 전수교조라는 결실도 맺었다. 김 원장은 “오래, 자연스럽게 숙성된 된장”이 제 맛을 내듯 춤도 몸과 마음에서 우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52살 늦은 나이에 첫 발표회를 가진 이후 매년 발표회를 열어 전통 춤의 멋스러움을 널리 전하고 있는 김 원장에 대해 이매방 선생은 이렇게 평가한다. “세태 속에서 잘 변하는 것이 인심인지 사제간도 예전 같지 않는데 사려 깊은 반려와의 동행으로 내 춤 지킬 울퉁한 제자 하나는 건진 듯 하다”고.

김 원장은 매일 아침, ‘생활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며 살 수 있길’ 발원하며 향을 피운다. 40년 남짓 108배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부처님전에 고하는 혼자만의 예불시간을 갖는다. 하루도 빠짐없이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시간은 그녀의 춤과 인생 전체를 부처님전에 감사하며 고하는 순간이다.

김 원장은 이제 회향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제자들은 나름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는 김 원장은 해종 스님(갑포사 주지)과의 깊은 인연으로 옹호복지단체 등에 얼마간의 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제자들이 모두 풀이간 무용학원의 탕반 마루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들반들 윤을 낸다. 제자들보다 앞서 학원에 온 김 원장이 부지런히 닦고 닦은 까닭이다. 이매방 선생의 춤 길을 따라 홀로 승무와 살풀이춤을 추고 또 뺨을 그 마루는 김 원장의 변함없는 손길이 닿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Ⅲ-1030] 기도보행

<재 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삼사수레 안내

<강와 보문사, 전등사, 선원사> ○ 일시 : 2004년 3월 7일 일요일
○ 출발지 : ① 동서울터미널 ② 모란시장 ③ 곤지암 ○ 출발시간 : 오전 7시

생전예수재 안내 만49일간 보행

○ 입재 : 2004년 양력 윤 2월 29일 ○ 회향 : 2004년 음력 윤 2월 29일

《살수생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승으로부터 이른바 인생저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이승에서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면 구태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는 누구나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생들은 저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그 빌린 인생 대출자금을 저승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 상환하는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라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절에서는 2000여년의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최초로 《예수재의식》을 우리들 시인결로 완성한 만큼 국내에서는 가장 야법하게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신간

우리말 四言節

독송 · 사경송

편역자: 동불스님

도서출판 운주사

값 6,000원